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創 誠
奉 實
意 仕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인쇄인 金 在 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TEL. 3673-2851~4
568-6651~2
FAX. 568-6653
ISSN 1227-7053
등록일:1988년2월19일

〔月刊〕 第123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3月 25日(水曜日) 〔1〕

한국어항협회 1998년도 정기총회 성료

미래지향적 방향 제시등 사업 확정
국제교류로 어항기술수준 향상키로

한국어항협회는 3월24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회의실에서 1998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백 여명의 내외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사업 및 결산승인과 함께 올해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총회에서 △미래 지향적인 어항어촌의 발전 방향 제시 △어항어촌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홍보 △정부 위임위탁 사업의 효율적 추진 △어항인의 총의 결집과 원활한 창구역할 수행 등 올해 협회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은 박규석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어항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공간일 뿐만아니라 관광, 레저, 문화, 정보기능을 함께 하는 다목적, 복합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말하고 이를위해 정부도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선길 장관은 특히 "어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관광휴양형 어항어촌을 건설하는데 그 정책목표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손정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산업의 근간이며 어업인의 생활기반인 어항어촌을 종합개발하여 안전하고, 살기좋고, 활력있게 가꾸어 나가야 하며, 바다와 친숙한 국민을 위해 어항어촌을 여유와 윤기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제2차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등 국제간의 어항 기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어항기술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손정식 회장은 특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노력,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있으면 이를 과감히 타파하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배인 거품을 모두 제거하는 등 피와 땀이 배인 도전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협회 역시 한방울의 물도 아껴쓰는 철저한 내핍경영으로 외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협회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켜 어항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뼈를깍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임기만료된 감사에는 조홍제(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이환범(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현 감사가 연임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우리나라 어항어촌 발전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자 명단 △정윤삼 대표이사(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김재우 대표이사(동화건설주식회사) △황금추 대표이사(동광건설주식회사) △정진우 전무이사(삼부토건주식회사) △김춘동 이사(금광기업주식회사) △유삼열 업무부장(주식회사 새건설)

한국어항협회는 3월24일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1백 여명의 내외 귀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임기만료된 감사에는 조홍제(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이환범(주식회사대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현 감사가 연임됐다. 또 우리나라 어항개발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항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손정식 회장 인사말씀

철저한 내핍경영 협회체질 강화와 윤기있는 어항어촌 조성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냉엄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화된 개방화 물결은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개방화 시대에서는 강한 경쟁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글로벌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우리앞에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선진국 진입의 꿈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의 도산, 실업자 양산과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산업기반이 와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극복은 정부나 몇몇 대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결연한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총체적으로 왜곡된 우리의 경제, 정치, 사회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하루빨리 암울한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실한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통해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 없지 않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발표한 1백대 국정 과제속에 '수산업 구조 조정과 어촌의 체계적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은 신해양질서에 맞서 수입자유화,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제한수역의 고도 이용과, 규모의 어업으로 전환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식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의 근간이며 어업인의 생활기반인 어항어촌을 종합개발하여 안전하고, 살기좋고, 활력있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바다와 친숙한 국민을 위해 여유와 윤기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에서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통한 관광 휴양형 어항어촌 건설'은 평소 우리 협회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추진해 온 사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어항어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 신뢰를 보낼 만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면에 계속)

金善吉 海洋水産部長官 致辭

어항의 탈바꿈은 시대적 휴양형 어항어촌 건설을 목표 요청

오늘 한국어항협회의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협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손정식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일선 어항 현장에서 애써오신 어항인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 외환 위기에 따른 IMF 사태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5일 에는 '국민의 정부'가 희망과 도전이라는 돛을 올리고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우리에게 보내준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어 이렇게 우리 해양수산부가 재삼 뿌리를 깊이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업이 다가오는 21세기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산업이란 국가적 인식과 거친 파도와 싸우며 묵묵히 바다를 지켜온 어항인 여러분에 대한 높은 신뢰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 해양수산업이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합쳐 맡은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금년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어항을 어촌개발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어항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의 공간일 뿐만아니라 관광, 레저, 문화, 정보기능을 함께 하는 다목적, 복합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항이 명실상부한 어촌지역 발전의 중추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작정입니다.

특히 어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관광휴양형 어항어촌을 건설하는데 그 정책목표를 둘것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해양의 해'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일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큰 뜻을 펼칠 바로 그런 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어항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항인 여러분의 노력 뒤에는 우리 어민들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안락한 생활이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그 동안 어항인 여러분께서 쌓아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단결하여 노력한다면 어항산업의 발전, 나아가 해양수산업의 발전이 조만간 꼭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어항인 여러분의 분발을 거듭 당부드리며 한국어항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어항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면에서 계속)

우리 어항인은 지금 비록 많은 고통과 난관이 겹겹이 쌓여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시련은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어항인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기 위해 올해 한국어항협회의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미래 지향적인 어항어촌의 발전 방향 제시

둘째, 어항어촌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홍보

셋째, 정부 위임위탁 사업의 효율적 추진

넷째, 어항인의 총의 결집과 원활한 창구역할 수행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매력있고 활력있는 수산업의 지원과 정취 넘치는 어항환경의 창출, 어촌과 도시간의 교류공간 조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2차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등 국제간의 어항 기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어항 기술수준을 한 차원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항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과 새로운 어항어촌문화의 발굴 보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 청소선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켜 우리나라 어항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단체인만큼 회원에 대한 봉사체제의 확립과 공동이익의 증진 도모, 어항건설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및 어항정비계획의 수립 촉구, 불합리한 어항관리제도의 개선을 촉진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많은 고통과 노력,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있으면 이를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배인 거품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피와 땀이 배인 도전없이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협회 역시 한방울의 물도 아껴쓰는 철저한 내핍경영으로 외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내실있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체질을 더욱 강화시켜 어항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뼈를깍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마다 은근과 끈기, 그리고 단합된 힘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엔 잠시 짙은 어둠이 있게 마련이고, 추운 겨울을 잘 견뎌야 봄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어항인 모두는 역사의 전환기 한복판에 서 있다는 자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오고 있는 21세기는 기필코 우리가 이끌고 나가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야 할 지금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어항인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하나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1998년도 한국어항협회 정기총회를 맞아 내외 귀빈과 어항인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동정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을 협의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20일 J.월프스윈클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해양수산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이어 E.카스리 주한 튀니지 대사가 주최한 독립기념일 축하 리셉션에 참석하고 각국의 주한 외교관 사절과 관련국과의 공동 관심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12일 해양수산부 산하 주요단체장 신임장관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19일에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남극세종기지 설립 10주년기념 리셉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3월6일 거제수협 본소청사 준공식 및 신용부 이전 개점식에 참석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10일에는 임협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 19일에는 대방동 대림아파트 단지내 개장된 농수축산물 직거래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3월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남극세종기지 설립 10주년기념 리셉션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3월20일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옥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4일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세미나에 참석, 11일에는 유네스코광주전남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12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자원봉사위원 세미나에 참석, 19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관주전남지사 98상임위원회에 참석, 25일에는 2002월드컵 광주개최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3월1일 광주광역시 의사협회 고문으로 추대, 3일에는 송원학원 산하 각급 학교 입학식에 참석, 24일에는 광주이동통신 주주총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3월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 6일에는 서울대법대 운영위원회에 참석, 17일에는 전경련 최고경영자 조찬에 참석, 25일에는 한국능률협회 이사회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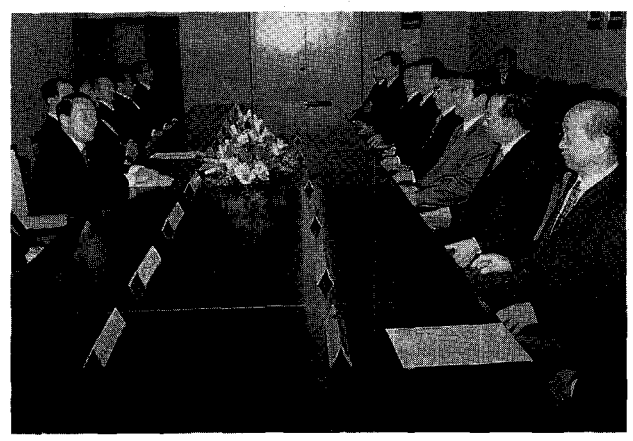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4일 장성 삼계지구 공사현장에 출장, 5일에는 나주세무서 일일 서장을 역임, 18일에는 해남 양촌제 농업용수 시설공사 현장에 출장.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7일 하정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17일에는 진도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3월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분회 간담회를 주재, 14일에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 17일에는 범죄예방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 24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임제호 삼오종합건설주식회사 사장은 3월18일 대한건설협회 제40회 정기총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3월17일 마산공사현장에 출장.



■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3월12일 해양수산부 산하 주요단체장 신임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차관 전승규 〈3월 8일자〉 □차관보 박규석 〈3월 13일자〉 □국장급 △안전관리관 이은 △해양정책국장 김광수 △해운선원국장 박원경 △항만정책국장 최낙정 △항만건설국장 이동원 △본부근무 민병성 박욱종 조남일 〈3월 11일자〉 △국립해양조사원장 김성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장직무대리 주재환 〈3월 13일자〉 □과장급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성욱 △안전관리관실 선박관리담당관 김종의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이선준 △〃법무담당관 박종록 △〃비상계획담당관 이종석 △해운선원국 연안해운과장 나승렬 △〃선원노정과장 권성원 △항만정책국 항만정책과장 김덕일 △〃민자개발과장 조종환 △〃항만운영과장 깅형남 △〃항만장비과장 박정천 △항만건설국 건설계획과장 남대우 △〃항만건설1과장 박영우 △〃항만건설2과장 이상문 △〃기술안전과장 정만화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장 문해남 △〃어촌계획과장 이광로 △어업진흥국 어업지도과장 나택균 △〃지도육성과장 서상범 △〃자원조성과장 정영재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홍우기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배계남 △〃남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기호준 △국립해양조사원 관리과장 이문희 △〃해도과장 최영섭 △국립수산물검사소 서무과장 민병훈 △〃분석과장 노승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양태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황수철 △〃선박선원과장 이장우 △〃항만운영과장 임광수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이동원 △〃〃조사시험과장 이용기 △〃〃아산항건설과장 전건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장 신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효곤 △포항〃진두현 △제주〃원청재 △안전관리관실 안전계획담당관 임기택 △〃해양방재담당관 박재준 △〃어선관리담당관 이광수 △해양정책국 해양총괄과장 신평식 △〃해양개발과장 주성호 △〃해양환경과장 김영석 △〃연안역관리과장 한상배 △본부근무 임인기 박해용 김형인 최문환 정해택 이재홍 정창언 김성채 조규섭 윤용진 김웅 손장현 신연식 〈3월 13일〉

당선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김봉훈 조합장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강원복 조합장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진태구 조합장 ▲경남정치망수산업협동조합 강인홍 조합장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인

▲손광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이홍식씨(주앙대학교 교수)

▲오진수씨(전 수산청 과장)

▲박덕만씨(전 해양수산부)

▲김종규씨(해양수산부 양식어업과장)

▲손영수씨(전 한국어선협회 검사이사)

부음

▲이수문씨(해양수산부 제주지방해양수산청)는 3월8일 부친상을 당했다.

전국 연안역 체계적 개발

지역산업 특성맞게 법제정 추진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이 되고 있는 전국의 연안역이 지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 개발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자체별 고유목적에 따라 선점식으로 개발돼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전국의 연안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 세부관리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연안역에는 49개 항만을 비롯 1천9백40개 어항, 25개 해안도시 및 22개 산업기지가 들어서 있으나 무질서한 개발로 지역의 산업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연안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용행위를 통제 조정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안역관리법령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중 제정법안을 확정,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제정되는 연안역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안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안역 관리계획과 각종 건축행위를 조정 통제하기 위한 용도지역제 도입 및 연안역 환경영향평가, 연안환경의 보전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국의 연안역을 개발정비연안, 개발조정연안, 보전연안 등 권역별로 나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되 지역특화 위주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까지 관계부처간 협의를 완료하고 6월중 임시국회에 연안역관리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8월에는 연안역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498개 육지 소규모 항에 2002년까지 900억 투입

오는 2002년까지 4백98개 육지 소규모항의 방파제 선착장 등 기반시설에 9백억원이 투자된다.

행정자치부는 제2차 육지 소규모항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선착장 물양장 등 소득기반시설 4백78건 1만6천3백77m와 방파제 호안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3백89건 2만61m를 시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각 4백58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백2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총 9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차 5개년 계획은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계류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어업인의 안정된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개발대상 어항은 소규모어항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장 군수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제1차 사업계획중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과 어업인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올해는 제1차 5개년사업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어항과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어항을 대상으로 어민에게 직접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65개 어항(11개 시·도,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1차 잔여사업 41건, 43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24억원) 그리고 제2차 신규사업 25건, 21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1억원) 등 총 66건에 64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35억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읍·면·동 공무원을 보조자하는 등 공사감독자의 지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중 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 제정

건교부 현 준용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올해안에 도로, 철도 등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대가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또 각종 시방서 및 지침에 흩어져 있는 가설물 설치요령을 건설현장에서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설물 상세표준도가 제정된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시설물특별법에 의해 이미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대가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 위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대가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대가기준도 관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대가기준과 마찬가지로 공사규모별 또는 정기 정밀점검 등으로 구분해 제정할 계획이며 특히 인건비와 관리비 기술료 직접경비 외에 추가로 굴착에 대한 안전점검대가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기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최근 관련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안전점검대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연내에 이를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최근 발생한 건설공사 안전사고에서 가설물설치 부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 각종 시방서 및 지침에 흩어져 있는 가설물 설치요령을 체계적으로 통합, 표준도를 만들어 가설물설치 부적정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할 계획이다.

해외어항정보

좀더알자 바다살림

후케(深日)·코지마(小島) 어항에서 활성화

일본 오사카 미사키(岬) 지구에서는 '더 알자, 좀더 알자, 바다살림과 생선, 이렇게도 아까운 후케(深日)·코지마(小島)'를 기본테마로하여 후케어항과 코지마어항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후케어항은 뛰어난 자연해안 경관과 대도시권에서 1시간 거리의 입지조건을 살려서 도시주민이 어업이나 수산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오사카 만 남쪽 선인망어업의 거점어항으로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코지마어항은 일본조, 자망 등의 좋은 어장이 가까이 있는 특성을 살려서 유어에 의한 체험어업과 함께 어항주변의 뛰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친수시설을 정비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배수처리시설, 다목적 광장 등의 시설을 정비한다.

후케·코지마 어항 모두 '재배 수산물 유통기지로 정비', '도시주민 교류형 거점기지로 정비'를 2대 테마로 삼고 각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케어항은 총액 40억9천만엔의 예산으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어업활동지역 : 미사키정(岬町)의 거점어항으로 정비. 오사카 만 남부의 멸치양륙거점으로 정비, 축양수면, 새우류, 넙치 등의 중간 육성시설을 정비하여 어업진흥을 지향한다.

②생식생물관찰 및 친수지역 : 천연 해초장과 연결된 증식형 호안으로서 해초장을 조성하여 거기에 생식하는 생물을 관찰하거나 바다와 친숙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한다.

③수산물 직판 및 레스토랑 지역 :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에게는 열린 어항으로서 더욱 많은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

④수산학습지역 : 어업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설(미니 수족관 등)을 정비한다.

⑤교류시설지역 : 지역주민의 운동광장과 여러 가지 항구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어도시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

코지마어항은 총액 23억4천만앤 예산으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어업활동지역 : 수산관련시설(어구창고, 어구건조장 등)을 정비하고 취로환경 어업경영의 개선이나 겸업기회의 창출을 도모한다.

②유어어업체험지역 : 유어와 체험어업을 주체로 한 관광어업기지로서 관광객과 어업자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바다식품레스토랑 등)을 정비한다.

③친수지역 : 관광객이 어항과 접촉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정비한다.

④교류시설지역 : 지역주민의 운동 휴식의 광장으로서 여러 가지 항구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한다.

⑤환경개선지역 : 어촌이 좁고 생활배수가 어항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⑥숙박시설지역 : 기존민박의 개선과 확충을 도모한다. 대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대 또한 크다.

살기좋고 활력있는 漁港漁村건설에 寄與하겠습니다

ISO 9001 인증획득

주요사업종목

◇ 전문기술용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환경상하수도

◇ 설계감리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 평가분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토목시공감리 ◇ 측량

◇ 항만기술부설연구소

會長	姜信雄	常務理事	孫光植	常務理事 技術士(都市計劃)	呂運泰
副會長 技術士(港灣및海岸)	閔英植	技術理事 技術士(港灣및海岸)	宋寅哲	技術理事 技術士(交通)	宋寅錫
副會長	許成部	常務理事	吳洪均	部長 技術士(水質管理)	金鍾洙
代表理事 技術士(港灣및海岸)	孫一洙	技術理事 技術士(道路및空港)	梁熙範	技術理事 技術士(土質및基礎)	安重善
副社長	朴鎬胤	常務理事 技術士(土木構造)	沈相權		

株式會社 建一엔지니어링
KUNIL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44 한강빌딩 8F, 10F TEL : (02)539-0506 FAX : (02)539-9350

건·강·하·게·삽·시·다

춘 곤 증

전신의 기력이 감퇴되는 느낌 쑥 냉이 등 신선한 봄나물이 춘곤증을 해결

새 생명이 움트는 3, 4월은 기나긴 겨울에서 벗어나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인 동시에 1년 4계절 가운데 신체리듬의 변조가 가장 심한 때이다.

겨울동안의 신체리듬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몸안의 여러 작용도 갑자기 왕성해져서 겨울과는 다른 상태가 된다.

따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다' '머리가 어지럽고 목덜미가 무겁다' '자꾸 하품이 나고 졸립다'는 등의 하소연을 듣게 되는데 이런 피로를 춘곤증이라 한다.

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신체적 원인, 영양부족 원인, 심리적 원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요인에서 졸음이 오는 이유는 피로하기 때문이다.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게다가 교감신경이 따뜻한 외부에 노출되고 대뇌의 혈액공급이 감소되면서 두뇌활동이 저하된다. 따라서 졸음이 쏟아진다.

영양적 요인으로는 기초대사를 뒷받침하는 영양과 비타민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신체의 신진대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봄은 비타민의 소모량이 겨울보다 약 3~10배 가량 늘어난다.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C이다.

심리적 요인으로는 봄철에 일어나는 이사 인사이동 등의 환경변화에서 빚어지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감이 신신을 억눌러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나른해지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이다.

춘곤증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인체가 적응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어떤 독립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홀히 하다보면 증세가 심해지고 잠복되어 있던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유없이 나른하고 피곤해 진다. 또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증 전신권태감 등이 동반된다. 때로는 머리가 멍하다든지 팔다리가 무력해지고 전신의 기력이 감퇴하는 느낌이 든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한다.

이같은 불편 증상은 평소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볍게 넘기거나 별 부담없이 극복하지만 허약체질이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점점 부담이 심해져 몇 주일씩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춘곤증 극복법은 식이요법, 생활리듬 유지법, 휴식법, 운동요법 등이 있다.

식이요법은 규칙적인 식사와 비타민B와 C가 들어있는 과일 채소 등을 충분히 먹고 생선 육류 등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하고, 특히 쑥 냉이 등 신선한 봄나물은 춘곤증 해결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날이 풍부할뿐더러 식욕을 돋우는 효과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7〕

第2章 浚渫工

(7) 해저관(심설관)의 설치

해저관을 예항할 때의 길이는 박지나 항로를 감안할때 120m 정도가 한도이다. 예인선의 선수에서 예항물의 후단까지의 길이가 200m를 초과할 경우는 미리 항행예정시각 및 수산부령(새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해양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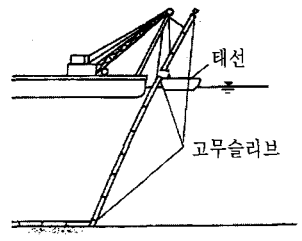


그림 2.2.11 해저관의 접속

예항되어온 해저관의 한쪽을 육상영호에 부착하고 다른 쪽은 크레인부착대선상에서 맹판을 떼어내고, 그림 2.2.11에 보이는 요령으로 침설한다.

그러나 장거리의 침설을 할 경우에는 작업중에 해상관이 중간에서 부상하지 않도록 해저관의 부상영호측과 해상관을 연결한 다음 육상영호측의 해저관을 수몰시켜서 차례로 침설해 간다.

침설작업완료후 잠수부에 의하여 부설상태를 확인한다.

침설작업은 크레인부착대선, 양묘선, 콤프레서, 압선(pusher barge)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8) 부상영호설치

해상관과 해저관과의 접합점을 부상영호라 한다. 파랑 등으로 해저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상관을 앵커로 고정한다.

(9) 해상관 설치

(6)설비공에서 조립된 플로터를 예인선으로 현장까지 예항하고,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여 앵커로 고정한다. 이 플로터상의 해상관 한쪽을 해저관과 연결하여 부상영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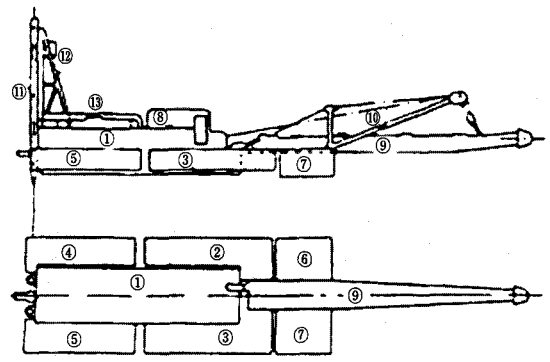
(10) 회 항

공사에 필요한 펌프준설선 및 기타 선박이 공사하는 항구에 재항하고 있지 않을 경우 또는 재항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사에 이용되고 있어서 공정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는 회항이 가능한 근처 항구에서 예항한다. 소형 펌프선은 회항시의 내파랑성이 낮으므로 먼바다의 원거리 회항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상에서의 반입이 곤난할 경우는 조립형 펌프선이 사용된다. 조립형 펌프선은 대형트럭이나 트레일러로 운반이나 해체조립이 가능하다. 그림 2.2.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블록으로 나눈 구조로 되어 있다. 해체 및 조립용의 야드가 필요하다.

(11) 본선인출

회항한 펌프준설선을 근처의 안벽 등에서 의장해제하여 스퍼드(spud)를 세운 뒤 소정의 위치까지 예항한다. 위치결정은 통상 준비공으로 기를 꽂아둔 위치에 펌프준설선을 넣고 스퍼드를 타설한 뒤 스윙앵커를 타설한다.



품 호	품 명
①	중 앙 선 체
② ③	측 면 선 체 전 부
④ ⑤	〃 후 부
⑥ ⑦	〃 보 조
⑧	하 우 스 브 리 지
⑨	래 더
⑩	래 더 샤
⑪	스퍼드(spud)
⑫	스 퍼 드 샤
⑬	선 상 관
⑭	기 타 부 품

그림 2.2.12 조립형 펌프의 블록

♣ 생활정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상설 단속반 편성 신고전화 검찰청서 24시간 운영

학교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집단화 조직화 흉포화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검찰은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면학분위기 아래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밝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기구

대검찰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중앙추진본부·자문위원회·유관기관대책위원회 등 중앙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역추진본부·지역대책협의회·자원봉사자협의회 등 지역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활동내용

합동단속반 편성·운용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소년전담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며, 자원봉사자들이나 피해학생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예방단속반 편성·운용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교외생활지도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야간순찰활동 및 유해환경감시활동 등을 실시하며, 교통단체 여성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교통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등하교길 교통환경 취약지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고전화 설치·운용

피해신고를 쉽게 하도록하고 신고접수 즉시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섬으로써 실질적 피해구제에 기여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신고전화는 대검찰청 및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활동사례

학교폭력 구제

(신고내용) 서울 잠실소재 J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윤모군이 동급생인 원모, 송모군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온 몸에 멍이 가실날이 없고 정신장애 현상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는 어머니의 신고전화를 검찰총장이 직접 접수했다.

(처리결과) 서울동부지청 검사가 신고자를 방문조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신고자를 찾아와 치료비를 지급하고 백배 사죄하여 피해자와 신고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또한 같은 반 급우들도 선처를 요청하므로, 죄질은 불량하나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가해학생들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조치하고 피해자에게도 보호위원을 지정하여 피해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다.

가출소녀 귀가조치

(신고내용) M여중 3학년 딸 박모양이 가출하여 청주지역 술집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찾아봐 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처리결과) 탐문수사로 박양의 거주소재 N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박양은 부모에게 인계하고 식당업주는 구속하였다.

♣ 생활정보

전국 신고 전화번호

기 관 명	신 고 전 화	기 관 명	신 고 전 화
대 검 찰 청	(02) 3480-2828	춘 천 지 검	(0361) 240-4282
	FAX (02) 3840-2829	강 릉	(0391) 649-5828
서 울 지 검	(02) 530-2828	원 주	(0371) 46-2828
동 부	(02) 204-2828	속 초	(0392) 635-7740
남 부	(02) 649-2828	영 월	(0373) 374-2828
북 부	(02) 349-2828	대 전 지 검	(042) 284-2828
서 부	(02) 306-2828	홍 성	(0451) 31-0848
의 정 부	(0351) 879-2828	공 주	(0416) 52-2828
인 천 지 검	(032) 46-2828	강 경	(0461) 754-2828
부 천	(032) 320-2828	서 산	(0455) 667-2828
수 원 지 검	(0331) 216-2929	천 안	(0417) 555-2828
성 남	(0342) 47-2828	청 주 지 검	(0431) 63-2828
여 주	(0337) 85-28288	충 주	(0431) 846-2828
평 택	(0333) 657-2828	제 천	(0443) 43-2828

기 관 명	신 고 전 화	기 관 명	신 고 전 화
영 동	(0141) 44-2828	통 영	(0557) 648-2828
대 구 지 검	(080) 666-2828	밀 양	(0527) 355-2828
안 동	(0571) 54-2828	거 창	(0598) 945-2828
경 주	(0561) 745-2828	광 주 지 검	(062) 233-2828
김 천	(0547) 31-2828	목 포	(0631) 78-2828
상 주	(0582) 33-2828	장 흥	(0665) 63-2828
의 성	(0576) 32-2828	순 천	(0661) 52-2828
영 덕	(0564) 33-2828	해 남	(0634) 35-2828
부 산 지 검	(051) 256-2828	전 주 지 검	(0652) 75-2828
동 부	(051) 781-2828	군 산	(0654) 452-3333
울 산	(0522) 257-2828	정 읍	(0681) 536-2828
창 원 지 검	(0551) 85-2828	남 원	(0671) 33-2828
진 주	(0551) 85-2828	제 주 지 검	(064) 51-2828

※ 전화번호 2828은 '두팔두팔'로써 검찰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두팔로 껴안아 보호하겠다』는 의미임.